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20	04. 27	05. 04
대 표 기 도	이예준 형제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이예준 형제	김정규 형제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종려주일 -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4. 고난주간 특별기도 : 내일부터 토요일(17일)까지 오전 7시,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5. 부활절 헌금 - 20일(부활주일) 부활절 특별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6. 환영 - 공지원, 김시온 자매와 주돈혁, 정수영 형제께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7. 나눔의 시간 - 오서진 자매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윤선 성도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4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종려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1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새연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6 : 1 - 8(구p974) (Jesaja 6:1-8)	김새연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회복 - 항복하라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4월 24일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둔 백승민 자매의 치유를 위해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참된 교회는 잔칫집 같다

흔히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칫집 같은 교회라 해서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교회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물관 같은 교회”는 골동품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리워하며 옛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요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이 사람이 몰려오지만 그곳에 있는 유명한 스타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나갈 때는 한 푼씩 놓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잔칫집 같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축하하기 위해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산을 넘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부디 내일 교회에 함께 가자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모두 예배에 초청합니다. 그들이 몰려와 잔칫집을 가득 채웁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예수님께서서도 흐뭇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참된 교회는 잔칫집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어 말씀으로 풍성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는 교회가 잔칫집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 홍성욱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말해보세요.
2.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